

일본의 화이트데이

초콜릿보다 실속형 선물이 인기

글 · 박소희 기자 | 사진 · 토미 키미와(富木 美和)



... f r o m J a p a n ...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화이트데이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웃나라 일본. 일본 역시 화이트데이가 일요일이었던 까닭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매출이 부진했다. 화이트데이에 주로 초콜릿을 선물하며 특별한 날을 챙기던 일본 사람들이 요즘들어 부쩍 초콜릿보다 실용적인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어느때보다 차분했던 이번 화이트데이에는 구움과자를 중심으로 1천 엔부터 2천 엔 정도의 소액 선물세트가 인기를 끌었다. 또한 선물을 직접 건네지 않고 주문배달 시키는 고객이 늘어나 선물을 배달하는 모습이 눈에 자주 띄었다. 밤 쿠헨으로 유명한 유하임에서 화이트데이 선물로 내놓은 '보임현'은 반죽에 마지팬을 넣은 밤 쿠헨으로 촉촉한 맛과 적당한 사이즈로 인기를 모았다. 구움과자의 대표인 피낭시에, 마들렌 등의 선물세트 등도 초콜릿, 케이크의 인기를 앞섰다. ㉓

1. 초콜릿과 미니 밀푼유 선물세트, 가마쿠라 뉴 자방.
2. 1천 엔 정도의 구움과자 선물세트가 주로 선보였다. 가마쿠라 뉴 자방.
3. 미니 사이즈의 구움과자 선물세트, 프티가또 아슬티.
4. 프랑부아즈 마카롱 선물세트. 마카롱 후시아 로즈.
5. 가격대별로 준비한 구움과자 선물세트 디저트 팩토리.
6. 수플레 시리즈 초콜릿, 치즈, 딸기 맛 등 다양한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디저트 팩토리.
7. 밤 쿠헨으로 유명한 유하임에서 준비한 보임현 유하임.

